

[제11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기출문제 총평_박문각 이상기 교수]

1. 시험 난이도

금번 실시된 제11회 행정사 자격증 시험의 사무관리론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출제를 예상했던 “행정업무혁신규정”상 개정내용과 “민원처리법령”상 개정내용들이 출제되지 않아 수험자들을 당황하게 한 시험이었다. 또한 기출되었던 내용이 일부 재출제 되어 기출문제의 학습 또한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출제경향

금 회 시험에서는 민원법령의 내용이 논술형 40점 문제(물음1,2)로 출제되어 민원법령내용의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험이었고, 약술형 문제는 모두 “행정업무혁신규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문서관리”의 내용이 2문제나 출제되었고, 서식관리 내용과 문서관리 내용을 혼합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

3. 출제문제분석

1) 논술 문제는 민원법령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용어의 정의 내용 문제를 물음1,2로 나누어 출제되었다.

답안 분량도 상당히 적은 양으로 답안작성 시간도 짧은시간 내 작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2022. 7. 12.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그 양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이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예상외로 개정 내용은 출제되지 않아 제12회를 준비하는 수험자들에게 개정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2) 약술형 2번은 “행정업무혁신규정”상 문서관리 부분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분량이 상당히 적은 내용의 문서의 반송, 이송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분량이 적으므로 답안을 작성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약술형 3번의 문제는 기출되었던 내용이 출제되었는데 2017년도 제5회 시험 당시 출제되었던 서식관리 내용과 2019년도 제7회 시험 당시 출제되었던 문서관리 내용의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답안 분량도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불의 타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4) 약술형 4번은 공문서관리 부분에서 출제되었는데 내용을 분석하면 “행정업무혁신규정”상 공문서의 종류와 문서처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

이나,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조건의 내용은 2014(제2회), 2019(제7회), 2020(제8회)년도에 출제되었던 내용으로 이번 시험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출제되었다. 답안의 분량도 상당히 많은 양이나 평소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자라면 답안을 작성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수험전략

1) 향후 제12회 행정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전략은 변함없이 기본서를 통한 이론의 정확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행정업무혁신규정”과 “민원법령”의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정확한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그리고 총 4문제 중 1문제는 불의 타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도 빠짐없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기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 회에 걸친 정, 다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제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도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쉽 없이 달려온 수험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가을풍경을 맞이하러 떠나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께는 가슴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공인 행정사로서 새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쉽게 이번 시험에 고배를 드신 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작은 돌부리에 걸려 잠깐 넘어진 것 뿐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뛰시면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끝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수험자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제11회 행정사 사무관리론 문제 총평에 갈음 합니다.

2023. 10. 7

사무관리론 이상기 교수 배상